LED TV 뭐가 좋을까

차세대 TV로 꼽히는 LED(발광다이오드) TV, 하루가 다르게 최신형이 출시되고 있다. 빛의 TV, 손가락보다 얇은 두께, 세계 최초 Full HD급 등 LED TV를 수식하는 단어 또한 화려하다. LED TV는 소형 형광등 대신 '빛을 내는 반도체'로 LED광원을 사용해 얇게 만들어 낸다. 소비전력도 130W로 일반 LCD TV(220W)보다 40%가량 적고 수명도 길다. 단 가격은 비싸다. 하지만 고화질, 슬림, 친환경 등의 놓치기 싫은 장점이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LED TV의 특징을 살펴보자.

LG

◇LG전자, 직하 방식 고효율 LED TV=LG전자의 마케팅 포인트는 화질이다. 직하 방식으로 광원인 960개(55인치 기준)의 LED 램프가 화면 전체에 골고루 퍼져 더 밝고, 더 선명한 화질을 구현한다는 게 LG전자 측의 주장이다.

지난달에는 화질과 디자인에서 최고의 사양을 집약했다는 '초슬림 풀(Full) LED TV'도 내놓았다. 기존 960개가 들어갔던 LED 램프를 3천360개(엑스캔버스 55LH93)까지 늘렸다. LED가 다른 LED TV보다 7배나 많이 들어가 있어 한 차원 더 밝고 선명한 화질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TV 화면을 240개 블록으로 구분해 칸칸마다 섬세하게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영상 부분 제어기술(로컬 디밍 : Local Dimming) 등을 적용해 화질을 높였다. 초당 240장의 풀 HD급 영상을 보여주는 240Hz 라이브스캔 기술을 적용, 빠른 화면에서도 끌림이나 잔상현상이 없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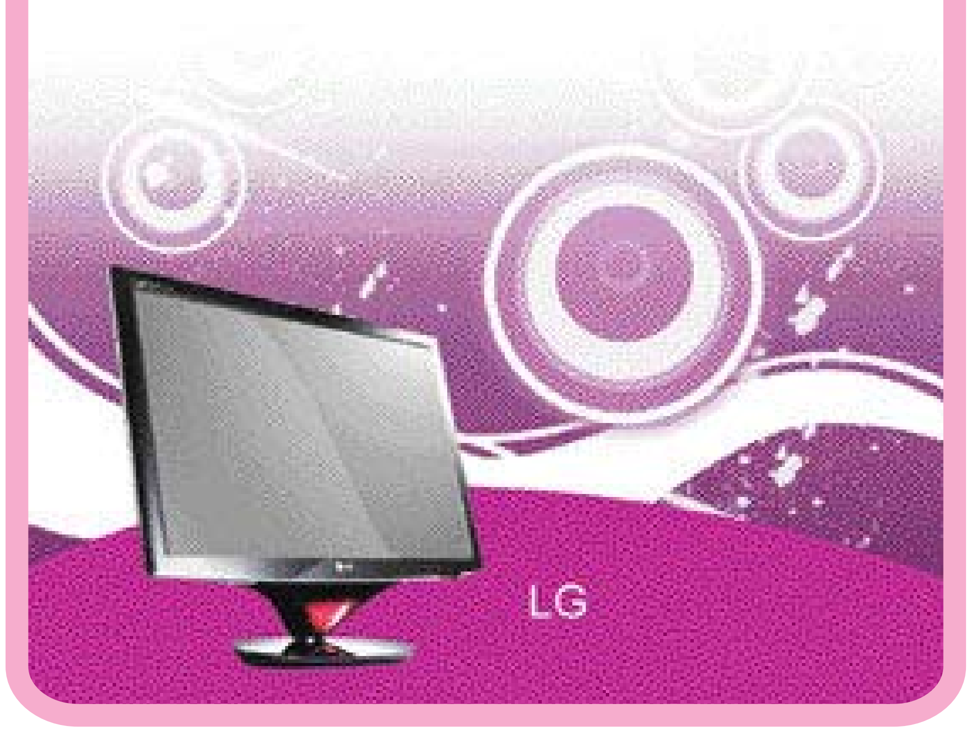
또 '24.8㎜ 최소 두께'를 내세웠지만 실제 하단부는 37.5㎜로 삼성전자 파브 LED TV보다 두꺼운 편이다.

LED, LCD TV 최초로 무압축 방식의 무선전송 기술을 적용해 주변기기와의 연결선을 없앴다. 즉 DVD플레이어, 게임기, 홈시어터 등을 무선으로 사용할 때도 풀 HD 영상을 압축하지 않고 전송할 수 있어 화질 손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 오디오 업계의 거장 마크 레빈슨이 튜닝한 '인비저블 스피커'로 스피커 홀이 따로 없이 테두리 8곳에서 소리가 울려 최적의 음향을 제공한다.

'아이큐 그린'(EYE Q Green)이라는 초소형 센서가 외부의 조명 변화를 감지해 화면 밝기는 물론, 선명도, 색온도, 명암비 등 총 4천96 단계로 미세조절해 소비전력도 낮췄다.

'초슬림 풀 LED TV'의 가격은 55인치가 700만원, 47인치가 430만원이다.



삼성

◇삼성전자, 친환경 LED TV=경쟁력 있는 가격대에 화질과 두께, 저전력 등 LED TV가 갖출 수 있는 장점을 두루 갖췄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LED 램프를 테두리로 빼낸 에지 방식으로 TV의 두께를 줄였고, LCD 뒷면 전체에 LED를 넣은 직하형에서 비해 핵심 부품인 LED도 480개(파브 LED 8천 모델)로 적게 들어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것. 또 보다 적은 LED를 사용하더라고 효율이 높고 성능 좋은 화질엔진을 사용해 화질도 경쟁력을 갖췄다고 삼성전자 측은 강조한다.

또 240Hz 기술에 대해 LG 전자 LED TV는 80Hz 패널 2개를 배치해 '240Hz 효과'를 낸 것이지만 파브 LED TV는 80Hz 패널을 3개를 패치해 진정한 240Hz 기술을 구현해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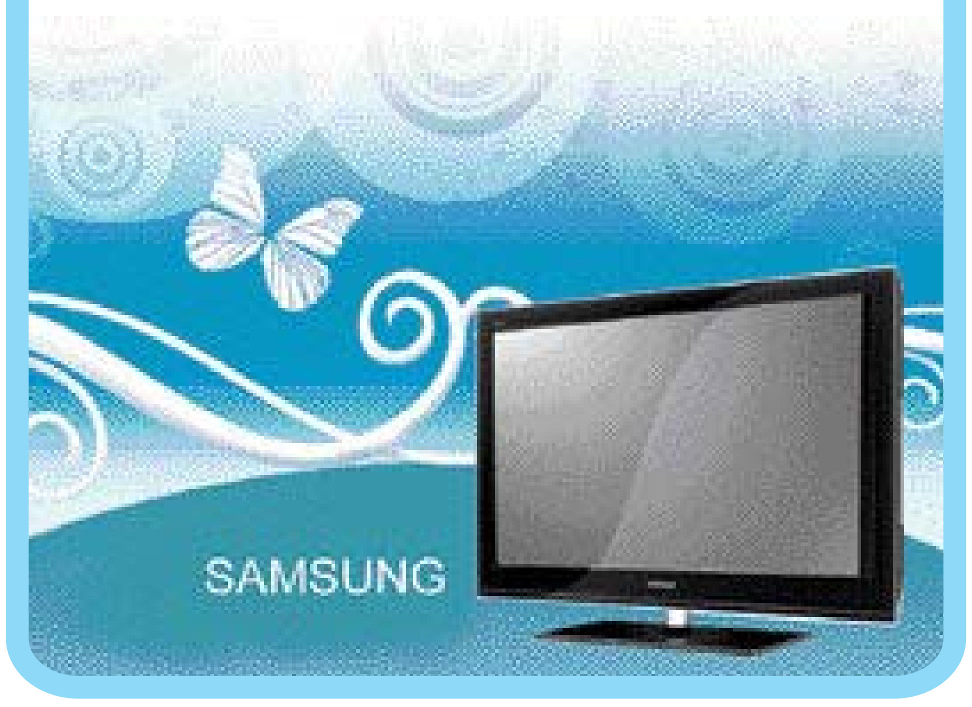
두께는 손가락 한 마디 굵기에 불과한 29㎜대의 '핑거슬림'(Finger Slim) 디자인으로 액자처럼 벽에 걸 수 있다. 얇은 두께와 가벼운 무게 덕분에 주부들도 가정에서 쉽게 TV를 옮길 수 있다.

LG전자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초슬림화'에 있어서도 파브 LED TV가 더 얇다. 가장 얇은 부분의 두께 역시 11.3㎜로 LG전자 LED TV 보다 7.6㎜가 더 얇다.

최근에는 전력소비를 대폭 줄여 친환경성을 살리고 240Hz 기술을 적용한 업그레이드 제품인 LED TV 6000·7000·8000 시리즈를 잇달아 선보였다. 외관 디자인의 색감 표현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스프레이 방식이 아닌 100% 재활용이 가능한 디자인 공법으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배출량을 없앴다. 대신 유리공예 느낌이 드는 '크리스탈 로즈 디자인'을 채택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렸다.

최근 출시된 파브 LED 8천 시리즈의 경우 44인치가 460만원, 55인치가 68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도움말 : 롯데백화점 광주점 가전담당 LG전자 정정신, 삼성전자 문지영〉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장터 소식

수영복 등 바캉스 페스티벌

광주신세계백화점이 휴가철을 앞두고 바캉스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19일까지 '바캉스의 모든것'을 주제로 특별 기획전을 티셔츠, 반바지 등 여름의류 균일가 행사를 진행한다. 또 23일까지 1층 시즌 이벤트 홀에서 '여름 샌들, 패션잡화 특집'전을, 8층 이벤트 홀에서는 '수영복 특집전'을 갖는다.

원기회복 건강식품 특별전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여름철 원기회복을 위해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건강식품 특별전을 진행한다. 더덕(100g·2천500원), 생닭(1마리·3천900원), 수삼(100g·4천500원), 미꾸라지(1㎏· 1만3천원), 민물장어(2마리·2만원), 한우꼬리·사골·잡뼈 등을 50% 할인판매 한다.

수산물 산지직송 대전

신세계 이마트는 22일까지 '수산물 산지직송 대전' 행사를 열고 '수산물 이력제 광어회'와 '신개념 간편 싱싱회' 등 차별화한 상품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상품과 활전복, 은갈치 등 주요 선어 상품은 25~35% 저렴하게 판매된다. 특히 수산물 이력제 광어회는 이마트가 지정한 17개 바다목장에서 꼬리표를 달아 관리한 광어회만으로 이력정보를 100%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

'마시는 홍초 체리' 출시

대상 청정원은 체리로 만든 '마시는 홍초 체리'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체리식초(48.4%)와 체리과즙이 주원료로 기존 홍초보다 신맛은 낮추고 상큼한 맛은 높여 더욱 부드럽게 마실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이 풍부하고 설탕, 합성보존료, 인공색소 등을 넣지 않아 다이어트와 몸매관리에 관심이 많은 20대 여성층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호에 따라 물이나 우유에 홍초를 1대 3 내지 1대 5의 비율로 타 마시면 좋다.

판매가격은 900㎖ 용량에 7천950원이다.

전자제품 전국 동시 세일

하이마트가 상반기 총결산의 의미로 19일까지 전국 동시 세일을 진행한다.

이 기간에 전국 270개 하이마트 직영매장에서는 다양한 품목의 전자제품을 최고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주말인 18~19일는 초특가 행사를 기획, 날마다 7종류의 모델을 선정해 총 5만대 규모를 선착순 한정 판매한다. 선풍기(2만7천원), 체중계(7천원) 등을 비롯해 올해 출시된 15평형 에어컨을 37.7% 할인해 99만원에 판매한다.

CEO들 책에서 위기극복 구한다

여름휴가 독서 주제 희망찾기·불황극복

이번 여름휴가 동안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책에서 '위기 극복'의 지혜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는 CEO 1천23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휴가 때 읽을 책'으로 경제·경영 분야의 도서 10권과 인문·교양 분야의 도서 10권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CEO들은 독서를 통해 금융위기와 불황을 극복하느라 지친 마음을 달래고, 경기 침체 극복의 길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소는 전했다.

설문조사 결과, 자신의 독서 주제로 '마음의 평안과 희망 찾기'(29.8%)를 꼽은 CEO가 가장 많았으며 '불황극복 아이디어 발굴'(22.5%), '불황기 소비자 마음 읽기'(4.3%), '경제위기의 원인 이해'(8.9%) 등이었다.

경제·경영 분야에서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지침을 담은 '카오틱스', '잃어버린 10년'에도 세계 일류로 도약한 비결을 담은 '일본전산 이야기', 21세기형 경영 패러다임을 제안하는 '경영의 미래' 등이 있다.

국제자금융본이 대공황과 금융위기 등 근대사의 여러 사건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담은 '화폐전쟁'과 금융위기에 앞서 월가의 붕괴를 경고했던 '블랙 스완',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코드 그린'도 인기가 있었다.

인문·교양 분야에서는 가족과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아버지의 편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엄마를 부탁해' 등의 책이 눈에 띄었다. /연합뉴스

아무도 믿지 말고 한빛고시학원만 따르라!! www.hanbitgosi.co.kr
기능직 공무원
정부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 특채 통해 3년간 기능직 정원의 15%씩 일반직 전환!!
일반직 전환특채
주말반(토/일) 오전 10:00 ~ 13:00 오후 14:00 ~ 17:00 2개월완성 합격맞춤강의 개강 7월 18일
수석합격
오직! 일반직전환 특채대비를 위한 전문강사진! 전문교재!
핵심이론과 족집게 문제풀이 특강
압도적 1위! 100%적중도전
전국 최강의 강사진, 최고의 시설에서 당신은 수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9급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고시학원의 대표브랜드- 광주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062)234-0234